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46호

###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 카타르 월드컵이 '최초' ... 이색 기록 네 가지

김천 JTBC 뉴스기자

#### 스포츠 워싱? ... 빅이벤트 점점 권위주의 국가로

오진송 연합뉴스기자

#### 5점 쌓아야 안심... 16강 도전 벤투호, 승점 셈법은

배진남 연합뉴스기자

#### FIFA, 카타르 월드컵으로 10조원 수익

정인덕 국제신문기자

#### 붉은악마,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던 '월드컵 거리응원' 추진

김재형 YTN기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회

#### "25% 장애인여성체육인, 소통X공감X연대의 시간" 워크숍 성료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카타르 월드컵이 '최초' 이색 기록 네 가지

카타르 월드컵은 다른 월드컵과 달리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붙습니다. 개최지의 특성과 문화 등 때문입니다.

## ■ 겨울에 열린 최초의 월드컵

우선 카타르 월드컵은 겨울에 열린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보통 월드컵은 6월과 7월 사이에 열리지만 카타르 월드컵은 한여름 평균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치솟는 관계로 겨울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최상위 축구리그인 '카타르 스타스 리그'도 9월부터 4월까지 여름을 피해 운영됩니다.

## ■ 최초로 개최국이 첫 경기서 패배한 월드컵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진 최초의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카타르는 현지시간 20일 알코르의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A조 경기에서 0-2로 졌습니다. 전반 16분 에콰도르의 주장인 에네르 발렌시아에 첫 골을 내준데 이어 전반 31분 또 한 번 발렌시아에게 점수를 내준 겁니다. 월드컵 역사상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개최국 전적은 16승 6무 무패였습니다.

## ■ 중동에서 열린 첫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에서 열린 최초의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한 월드컵은 그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칠레, 잉글랜드, 멕시코, 서독,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일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에서 개최됐습니다.

월드컵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린 월드컵입니다.

## ■ 최초 '음주 금지' 월드컵

이슬람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제한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경기장 안에서 맥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적힌 내용 때문입니다. 코란 5장 91절에는 '악마는 술과 도박으로 증오를 유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술을 파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음주 금지' 때문에 어제(20일) 열린 에콰도르와 카타르 A조 경기에서는 에콰도르 팬들이 경기장에서 '우리는 맥주를 원한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 스포츠워싱? 빅이벤트 점점 권위주의 국가로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경기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 많이 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아담 샬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30년 전에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행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최됐던 것과 달리, 10년 전부터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욱 자주 열리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지난달 미국 정치학평론(APSR)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1945년부터 전세계에서 열린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비롯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배구선수권대회 등 크고 작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역대 개최지를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권위주의 국가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비율은 1945~1988년 전체의 36%에서 1989~2012년 15%로 줄었다가, 이후 2022년 현재까지 37%로 상승했다.

연구팀은 특히 2008년 이래 중국이 하계 올림픽(2008)과 동계 올림픽(2022) 등 올림픽을 두 번 개최하고, 러시아가 동계올림픽(2014)과 월드컵 본선(2018)을 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오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열렸으나, 그 이후 6번의 경기 중 4번은 러시아 모스크바(2013), 중국 베이징(2015), 카타르 도하(2019), 헝가리 부다페스트(2023년 예정) 등 권위주의 국가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역설적이게도 이는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따른 결과라면서 스포츠 경기가 권위주의 국가가 자국의 위신을 세우고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스포츠 워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스포츠 워싱이란 국가나 단체가 한계도전과 공정한 경쟁 등 스포츠 정신과 경기가 주는 감동을 이용해 인권 탄압, 법치 훼손, 부정선거와 같은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비행을 덮고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연구팀은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국으로 선정될 경우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 같은 시설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방치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한 정부가 들어선 국가일수록 점점 더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의 경우, 앞서 민주주의 국가 4곳이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한 뒤 베이징이 선정됐다. 당시 베이징의 유일한 경쟁 후보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뿐이었다. 당시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신청을 철회한 스웨덴 스톡홀름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 경기장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때 떠안아야 하는 유일한 위험 요소는 시위대나 언론이 정부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지만, 이들 국가는 이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은폐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체포했다.

연구팀은 21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월드컵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수도 도하의 월드컵 관광객 숙박 지역 인근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사전 통보 없이 강제 퇴거시켰다.

카타르는 2010년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최근 10년간 인도·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6천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5점 쌓아야 안심... 16강 도전 벤투호, 승점 셈법은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막을 올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의 원정 대회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16강에 오르는데 필요한 최소 승점은 얼마일까. 과거에서 찾은 답은 5점이다.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24개에서 지금과 같은 32개국으로 늘어나 각 조 1, 2위가 16강에 나선 것은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다. 이후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여섯 차례 월드컵의 조별리그에서 승점 5 이상을 얻고도 16강 진출에 실패한 나라는 없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려면 세 경기에서 최소 1승 2무 이상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보다 적은 승점으로도 16강에 오를 수는 있다.

1998년 칠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카메룬과 모두 비겨 승점 3을 따는 데 그쳤으나 이탈리아(2승 1무)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당시 오스트리아와 카메룬이 2무 1패를 거둬 칠레에 밀렸다.

승점 4로 16강에 오른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같은 조에서 3전 전승이나 2승 1무 등 독주하는 팀이 나오면 승점 4로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커진다. 2002년 한일 대회에서는 조 2위로 16강에 오른 8개국 중 4개국의 승점이 4(나머지 4개국은 승점 5)였다.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도 4개국이 승점 4를 수확하고 조 2위로 16강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회에서 나머지 조 2위 국가의 승점은 6~7점이었다. 직전 대회가 열린 2018년 러시아에서는 2개국이 승점 4를 획득하고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승점 4가 16강 진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네 나라가 승점 4로 조 2위를 차지했던 2002년의 경우 똑같은 승점 4를 따고도 조 3위로 밀려 일찌감치 짐을 싣는 나라가 4개국이나 된다. 2018년 대회에서는 콜롬비아가 2승 1패(승점 6)로 1위를 차지한 H조에서 나란히 1승 1무 1패(4득점 4실점)에 골 득실, 다득점까지 같았던 일본과 세네갈의 희비가 엇갈렸다. 조별리그에서 옐로카드를 세네갈이 총 6장, 일본이 총 4장을 받아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앞선 일본이 16강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승점 4에 울고 웃었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1승 1무 1패로 역대 원정 대회 최고 승점을 쌓았으나 스위스(2승 1무), 프랑스(1승 2무)에 이어 조 3위로 밀렸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는 똑같이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당시 아르헨티나가 3전 전승을 한 가운데 그리스가 1승 2패, 나이지리아가 1무 2패에 그치면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도 결국은 최소 승점 5는 확보해야 16강 진출의 안정권에 들 수 있다.

'필승 제물'로 꼽히는 가나를 잡는다고 해도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중 한 팀을 더 꺾거나 두 팀과 모두 비겨야만 승점 5 이상을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4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대회의 2승 1무(승점 7)다.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이 이끈 당시 한국 대표팀은 첫 경기에서 폴란드에 2-0으로 이겨 월드컵 본선 사상 첫 승리를 거둔 뒤 미국과 2차전에서 1-1로 비겼고,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눌러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한국은 오는 24일 오후 10시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 FIFA, 카타르 월드컵으로 10조원 수익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21일 FIF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IFA는 2022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지난 4년 (2019~2022년) 동안 총 7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75억 달러는 한화로 약 10조 1000억 원 규모로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 기록적인 수치다.

이전과 비교하면 성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4년(2015~2018년) 동안 올렸던 FIFA의 수익은 64억 달러(약 8조 6000억 원)였다. 직전 월드컵보다 수익이 10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전임 회장인 제프 블라터 시절 치른 2014 브라질 월드컵 수익은 57억1800만 달러였다.

이는 중계권료 수익과 스폰서 계약이 늘어난 덕으로 추정된다. 미국 ESPN은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약 2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면서 “이전 8번의 월드컵 유치 비용보다 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자원 부국인 카타르 국영 기업과의 스폰서 계약을 통해 FIFA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FIFA는 다음 대회가 열리는 2026년엔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데다 본선 진출팀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자 월드컵에서는 별도의 스폰서 계약을 준비 중이다. 출전지도 참가국도 늘어나는 만큼 더 큰 수익을 예상한다.

AP통신은 “4년 뒤 2026년 월드컵에서 FIFA는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 붉은악마,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던 '월드컵 거리응원' 추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이태원 참사의 추모의 일환으로 취소했던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붉은악마 서울지부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난 17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붉은악마는 "처음 논의 당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지만, 이후 진행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초의 결정을 번복하는데 따른 부담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들에게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붉은악마는 광장 사용 허가가 나면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24일과 28일, 12월 2일에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광화문광장자문단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이태원 참사 여파로 카타르월드컵 거리 응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협회는 "이태원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거리 응원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20% 장애여성체육인, 소통X공감X연대의 시간” 여성스포츠 발전 위한 워크숍 성료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회가 18~19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여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현직 여성장애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총 35명이 참가했다. '사이클, 노르딕스키 레전드' 이도연부터 '20대 막내' 수영선수 최길라까지 다양한 연령의 선후배 장애인 여성 스포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강의를 듣고, 고민을 나누며 여성 스포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이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스포츠위원장은 "여성스포츠위원회는 2009년 발족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선수가 1만3000여 명이고 여성선수가 3500여 명이다. 25%가 여성이다. 여기 모인 분들이 더 많은 후배 여성선수들의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고, 여성 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1일차에는 장애인배드민턴 선수 출신 인권강사인 정경희 여성스포츠위원이 '자기진단을 위한 성격검사', 여자축구 선수 출신 신혜미 위밋업 대표의 '여성선수의 롤모델 되기'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진 휠체어컬링과 보치아 체험 수업에선 체육인 특유의 재능과 뜨거운 승부욕으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2일차인 19일에는 골볼 및 시각장애인 알파인스키 선수 김미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임이 '은퇴선수의 미래와 방향'을 주제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조별 토론 시간에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여성체육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여성 장애인체육 선후배들은 깊은 공감대 속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도연은 "많은 여성들이 아내, 엄마로 산다.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나왔다.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이렇게 도전하듯이 많은 장애인 여성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힘든 운동을 하다 오늘 이렇게 만나 마음껏 웃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여름 여자 골볼 사상 최초로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이끈 한태순 여자골볼 대표팀 감독 또한 선후배들의 가슴 따뜻한 교류에 같은 의미를 전했다. "골볼 선수들이 대회가 있어서 오늘 많이 오지 못했다. 내년엔 골볼 시각장애인 선수들도 많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궁 종목을 대표해 참석한 김정미는 "네트워크가 필요했고, 틀을 깨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 큰 용기가 됐다. 여성스포츠가 발전 했으면 좋겠다. 멋진 분들을 만나게 돼서 힘을 받고 간다"며 활짝 웃었다.

지난해 도쿄패럴림픽 조정 종목에 유일하게 출전했던 '에이스' 김세정은 "오늘같은 워크숍이 1년에 한번 하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좀더 일상화됐으면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최길라 역시 "쌍둥이 언니(최사라)가 추천해줘서 오게 됐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성 스포츠 속의 고민과 문제점들을 서로 풀어주고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이 스포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단독]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서 월드컵 응원전 개최

<https://www.mbn.co.kr/news/sports/4880380>

[기자수첩]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교육이 교육다울 이유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019>

파주시, 문체부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8800060?input=1195m>

전남교육청, 체육계열 공동교육과정 '아트페스쿨' 운영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79280?ref=naver>

고흥군체육회장 선거 출생지 '논란'에 워선 개입설? 소문 '시끌시끌'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08369>

경기도체육회 '후보자 전원동의 없어도 정책토론회 개최' 제안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18010003342>

'체육생활활성화' 위한 체육시설 정비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214>

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ESG 경영 실천 공동 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8073000007?input=1195m>

여직원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60대 간부 징역 6월 구형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1660&cID=10813&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1660&cID=10813&pID=1080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